인공지능 기업·기관들 광주로 몰려온다

시, AI SW업체 티맥스소프트사 기술센터 설립 MOU 체결

국가보안연구소 광주사무소 설립, IEEE AI표준원도 유치

'인공지능(AI) 수도'를 선포한 광주시가 국내 최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센터 유치는 광주시의 집중적인 AI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물로, AI선도기업들의 광주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 (주)티맥스소프트 본사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티맥스소프트는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 3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다.

티맥스소프트는 25년간의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 인공지능 특화 연구개발 중심 기술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기술개발센터 광주지역 설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분야 인력육성 지원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관련 기술·정책자문 ▲인공지능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등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오는 4월 초 15명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는 광주 사무소를 설립하고, 5월에는 향후 2년 간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300여 명 선발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박대연 티맥스소프트 회장은 "티맥스소프트는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에서도 뛰어난 인공지능 기반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며 "광주시와의 협력 사업이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모델이 돼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광주는 세계 일류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꿈꾸고 있다"며 "업무협약으로 티맥스소프트의 원천기술과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 전담부서까지 신설한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보안연구소와 광주사무소 설립 협약,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AI 표준연구원 등 인공지능 선도기관과 업체를 연이어 유치하는 등 세계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수도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 4만6200㎡부지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10년간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1200억원을 확보했으며, 세계적인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산업융합원, 자동차·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AI를 연계한 실증 테스트베드(시험시설)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히 AI 고급·전문 인재양성을 목표로 광주과학기술원에 AI대학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사관학교' 신설 등도 추진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전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AI·클라우드 전문 기업 (주)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박대연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지원

운영자금 55억·시설자금 15억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총 51건에 100억원이 신청돼 신규 신청농가, 생산자 단체·업체 등을 중심으로 42건 70억원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9건은 예비 후보로 선정했다. 융자지원사업은 운영자금 33건에 55억원, 시설자금 9건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장기간 소요된 과수 등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경우 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한편 전남도는 올 상반기 내 우선지원 대상 42건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지원 대상이 융자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비 후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소비 촉진 온라인 할인판매·시식회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수산물 판로가 막히자 10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할인판매와 시식회 등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 할인판매는 전남도가 직접 운영한 '남도장터'와 구팡, 위메프, 옥션 등 20개 남도장터 제휴업체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은 전남 청정 수산물인 김, 전복, 넙치, 우럭 등을 5%에서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전남도는 또 넙치, 전복, 우럭과 같은 수산물에 대해 도내 양식어업인단체와 함께 5일과 10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와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음식점·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번 소비촉진이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양식 수산물 정부 수매와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보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발굴 나서

4월까지 복지·경제 등 우선 시행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기존 일자리사업과 연관성이 큰 복지, 문화관광, 환경, 도시재생, 교통건설, 산업경제 등 8개 분야의 일자리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 실·국장을 팀장으로 현장 전문가와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일자리사업 발굴단을 구성한다. 소관 분야별로 일자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 토론 등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 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발굴 단계에서부터 일자리사업 전문가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발굴된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각 사업부서에서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소요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우수부서에는 포상금과 일자리사업 성과평가(BSC)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이달의 공무원' 우선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 e-스포츠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지원사업 등 신규 미래 일자리사업과 청년, 어르신, 신중년, 여성 등 계층별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재난·사고 보험료 전액 부담해 드려요

광주시, 최대 1천만원 보장

광주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화재, 산사태,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항목별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1년 365일 보장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를 참고하거나 시 안전정책관실(613-492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하고 있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를 본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 제도"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어업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금리인하해 달라"

전남도 코로나 피해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각해지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농신보)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미, 안개 등 화훼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2% 하락했으며, 대파는 9.7%, 수산물인 광어와 우럭은 각각 22.2%, 18.6%가 하락했다.

외식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출하량이 줄었고, 양식수산물은 사료대 투입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꽃 사주기 운동'을 지난 2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복, 우럭 등 수산물도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산 빨간배추는 전국 킴스클럽 35개 매장과 손잡고 판촉행사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 인건비 상승 등 애로사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증비율 100%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과 같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